

Dubai유, 홀로 강세 28달러 회복!

뉴욕유가, 재고량 조정 전망 속 소폭 하락 ... Brent유-WTI도 하락

중동산 Dubai유가 13일만에 28달러대로 올라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25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지난 주말보다 0.11달러 오른 배럴당 28.04달러를 기록하며 8월13일 28.06달러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다.

반면,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0.44달러 내린 배럴당 31.47달러에 거래됐고, 북해산 Brent유도 29.87달러로 0.45달러 하락했다.

석유공사는 미국 휘발유 재고의 감소와 세계 석유제품 수요 증가 전망에 상승세를 타던 국제유가가 차익 실현 매물이 늘면서 Dubai유를 제외하고 하락세로 반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유기업들이 막바지 여름 휴가철과 겨울 난방기를 앞두고 충분한 재고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뉴욕유가도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25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지난 주말보다 0.28달러(0.9%) 떨어진 배럴당 31.56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미국 에너지부가 연료 재고량이 9개월간 최저치라고 발표한 후 원유 가격은 가솔린 가격을 따라 오른 바 있다.

통상 미국의 가솔린 수요는 5월 말의 Memorial Day(전몰장병기념일)와 9월 초의 노동절 사이에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피마트 USA의 마이클 피츠패트릭 거래담당자는 가솔린이 모든 연료들의 가격을 이끄는 동력원이라며, 국제유가가 끌려 올라가던 좋지 않던 상황은 끝나고 현재로서는 부족 현상도 없고, 수요도 하락 추세라고 설명했다.

25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는 휴장했다.

<Chemical Journal 2003/08/27>